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조건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아미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와의 비교를 통해 -

안지영*

nazue@hanmail.net

차례

1. 들어가기
2.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조건표현의 양상
3. 『아미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에 나타난 순접조건표현의 양상
4. 『아미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와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의 비교
5. 맺는말

요지

本稿は江戸初期大藏流の狂言師の大藏虎明によって書かれた『大藏虎明本狂言集』を中心にして、そこに出ている順接条件表現についての考察である。

文語資料に記録されている文法事項は、口頭資料に比べて、規範性が強く、定型化した表現として現れるという限界性を持っている。従って、本稿では既存の文語資料の限界性を認識し、定型化した条件表現ではなく、実際の生活で使われている口語の中の条件表現の独特な特徴を把握することをその目的とした。また、口語の中での具体的な順接条件表現の特徴を考察するため、同時代の口語資料である『天草版平家物語』との比較を通して順接条件表現の諸様相を比較及び分析してみた。

その結果、『大藏虎明本狂言集』における順接条件表現の場合、その臺本の時期的な性格上、それぞれ近代語に分化、発展していく過渡期的な諸様相が現れていた。特に、恒常条件の場合にそのような傾向が目立ち、古代語から近代語へ移行していく過渡期的な性格が強く現れていると言える。

키워드 : 『大藏虎明本狂言集』, 『天草版平家物語』, 条件表現, 口語資料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기

조건 표현이란 접속 표현 중 「テ」「ツツ」등에 의한 사태(事態)의 단순한 시간적 연속 혹은 병행적인 표현으로 파악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접속되는 표현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건 표현은 순접 조건표현 역접 조건표현으로 나뉘는데, 그 중 순접 조건표현은 고대어에서 근대어로의 변화 속에서 그 체계에 극히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가정의 접속 조사 「バ」가 고대어에서는 동사의 미연형(未然形)에 접속하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사의 이연형(已然形)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근대>
가정조건 咲かば	→ 가정조건 咲けば
(未然形+バ)	(已然形+バ)

다시 말해서, 「꽃이 피면」이라는 순접 가정조건인 경우 고대어에서 「未然形+バ」의 형식으로 「花咲かば」로 표현되고 있던 반면, 근대어에서는 그 형식이 소멸하게 된다. 대신 원래 확정조건 형식인 「已然形+バ」의 형식으로 「花咲けば」와 같이 가정조건을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문어문법에서 「이연형」으로 불리고 있던 그와 동일한 형태가 구어문법에서는 「가정형(假定形)」으로 활용형의 명칭이 변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변화기에 해당되는 무로마치에서 에도시대의 구두어자료인 『오쿠라 도리아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¹⁾ (이하 大藏虎明本狂言集라고 약칭한다)에 나타난 순접조건인 접속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을 살펴 이를 고찰한 후, 이 결과를 『大藏虎明本狂言集』와 비교하여 구두어 자료에서의 순접 조건표현의 특징을 분석해가고자 한다.

교겐과 같은 구두어 자료를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일

1) 연구 대상으로는 池田廣司·北原保雄, 『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篇 上・中・下』, 表現社 (1972~1983)의 전곡을 대상으로 한다. 단 두주의 용례문은 제외하기로 한다.

본의 언어사회에서는 언문일치의 경향이 강하였으나, 헤이안(平安)시대가 되면서 구어와 문어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중세가 되면 언문불일치, 즉 구두어와 문어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문호가 개방되게 되면서 외국 언어 사정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깨닫게 되어 말과 글을 일치시키려 한다. 따라서 고대에서 근대에 걸쳐 구두어의 경우 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새로운 구어가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문어의 경우 교육 분야와 같이 전통성이 강한 분야에서 기반을 두어 오히려 보수적인 면이 강했다.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문법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의해 요소가 개선되는 일이 적었으며, 그 변화 속도도 서서히 진행되어 전통적인 학문이나 문학 세계에서는 종래의 문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간다. 이렇듯 문어자료에 기록된 문법적 사항들은 규범성이 강하여 정형화 된 틀 속의 형식으로만 나타난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기존의 문어 자료의 한계성을 인식, 정형화된 틀 속의 조건표현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되는 구두어 속의 조건표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정하였다.

2. 『오쿠라도라이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조건표현의 양상

『大藏虎明本狂言集』의 상·중·하에 나타난 순접조건을 분류해 본 결과, 순접조건을 나타내는 조건표현은 총 1,702용례가 있었다. 이것을 각각 가정조건, 확정조건, 항상조건²⁾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하 <표1>에 근거하여 각 표현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분류 기준은 순접조건표현의 사적 변천 과정과 일본어 조건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검토 후 정립한 본인의 분류기준 체계이다. 이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조건(假定條件) - 완료- 花咲かば見む。

비완료 - 君行かば我も共に行かむ。

항상조건(恒常條件) - 酒を飲めば酔ふ。

확정조건(確定條件) - 필연조건(必然條件) - 今日は雨降れば客無し。

우연조건(偶然條件) - 단순(單純)-顧みすれば月傾きぬ。

- 반예기(反豫期)-暮るゝかと思へば明けぬ。

- 대등(對等)-桃も咲けば櫻も咲きぬ。

<표1>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

조건표현 계	가정조건		확정조건			항상 조건	
	완료	비완료	필연 조건	우연조건			
				단순	반예기		병렬
합계	217 (12.7)	346 (20.3)	300 (17.6)	91 (5.4)	32 (1.9)	7 (0.4)	709 (41.7)

숫자는 용례수를, () 안은 %를 나타낸다(이하, 동).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 중, 가정조건은 총 563용례가 있었다. 그 중 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217용례, 비완료 가정 조건표현이 346용례로, 비완료 가정이 약 1.5배가량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우선 비완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인 「동사의 未然形+バ」의 경우 227용례가 있었고, 접속된 동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것은 총 97용례로 전체의 42.7%를 차지한 「アリ」의 접속 형태 「アラバ」였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총 77용례로 33.9%를 차지한 四段動詞와 결합된 未然形の 형태였다. 다음으로 많은 용례문을 나타낸 것은 「ゴザル」에 접속된 형태인 「ゴザラバ」였다. 이것은 총 31용례로, 13.7%의 비율을 나타냈다. 소수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는 下二段에 접속된 것이 3용례, サ変에 접속된 것이 3용례, 「オジャラバ」가 4용례, 부정 조동사인 「ズ」에 접속된 것이 12용례가 있었다.

다음으로 비완료와 완료의 성격을 띤 가정조건 표현 형식인 「ナラバ」와 「タラバ」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우선 「ナラバ」의 경우 총 190용례가 추출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체언과 결합한 형태로, 특히 명사와 결합한 것이 총 82용례로 4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체언과 결합한 형태 중 형식 명사인 「モノ」, 「コト」, 「ホド」가 「ナラバ」에 접속된 「モノナラバ」, 「코トナ라바」, 「호드나라바」의 형식이 각각 2용례 1.1%, 18용례 9.5%, 7용례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동사에 접속된 것이 총 69용례로 36.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수의 용례가 나타난 것으로는 형용사와 조사, 조동사로, 각각 1용례로 0.5%, 4용례로 2.1%, 7용례로 3.7%를 나타냈다. 특히 「ナ라바」의 경우, 접속사적 성격을 띤 용법이 다수 나타났다. 이것은 「나라바」가 점차적으로 접속사적 성격이 강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타라바」의 용례를 살펴보면, 총 217용례로 「나라바」에 비해 1.2%정도 많

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이전까지 완료를 나타내던 조동사 「ツ, ヌ, タリ, リ」 등의 완료 조동사들과 접속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상의 조동사들이 모두 「タリ」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사적 변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조건의 주요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ちんば)\あれがよまば、身どももよみませう (竹の子, 86:10)
- 2) (つんぼ)\目にみ(見)えた事がござらは、某にまか(任)させられひ
(きかず座頭, 428:8)
- 3) (薑賣)\そちがしやうばい(商賣)人ならば、身どもはあきんど(商人)じや
(酢はじかみ, 75:14)
- 4) (聳)\てまのいる事ならば、今日のむこ入はなるまひかとぞんじたれば、おもひの外やすひ事じや
(鷄聳, 334:9)
- 5) (大名)\某が聲をきひたらは出まひ程に、つくりごえをいたひてよび出そう
(じせんせき, 226:7)
- 6) (太郎冠者)\うそ(嘘)をいふものならば、四五百人ほどもあるといひませう
(なまぐさ物, 131:14)
- 7) (聳)\てまのいる事ならば、今日のむこ入はなるまひかとぞんじたれば、おもひの外やすひ事じや
(鷄聳, 334:9)

조건 표현의 두 번째 형식인 확정조건은 크게 필연 확정조건, 우연 확정조건으로 나뉜다. 특히 우연 확정조건은 단순조건과 반예기, 병렬로 하위분류된다.

우선, 조건구가 원인·이유를 나타내고 전건과 후건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필연 확정조건은 전건과 후건이 다른 조건표현에 비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어의 「カラ」와 「ノデ」에 해당한다. 총 300용례로, 「ナレバ」표현이 116용례로 38.6%를 나타내어 그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사에 접속된 경우로 총 92용례가 나타나 3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タレバ」의 경우 총 45용례로 1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동사의 경우 총 45용례로 1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형용사의 경우 총 6용례로 2.0%에 불과해 소수의 사용빈도를 보였다.

우연 확정조건은 전건과 후건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연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大藏虎明本狂言集』의 전곡에 나타난 우연조건은 총

130용례였다.

그 중 단순조건인 경우 총 91용례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접속에 따른 형태를 살펴보면 동사에 접속된 형태가 74용례로 56.9%를 차지하여 총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タレバ」의 경우 총 34용례로 26.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동사」, 「ナレバ」, 「형용사」 접속이 있었다. 각각 11용례로 8.5%, 10용례로 7.7%, 1용례로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예기 용법은 총 32용례로, 접속 형태로는 동사에 접속된 것이 총 9용례, 「タレバ」 표현이 23용례가 있을 뿐으로 반예기 용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병렬 용법은 총 7용례로 반예기 용법과 마찬가지로 『大藏虎明本狂言集』의 전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 8) (主)\見れは村鳥があらすと見えた (なるこ, 133:12)
- 9) (男)\人かと思ふたれは人形をつくつておいて、よひきも(肝)をつぶ(潰)ひた (うり盗人, 40:2)
- 10) (新發意)<<水をむすば、月も手にやどる、花をおれはさ衣に、うつるならひの候ものを>> (お茶の水, 243:15)
- 11) (牛博勞)\万(よろづ)思召ままの御代なれは、民はくせい(百姓)までもよろこひ、にぎ(賑)やかな事で御ざる (牛馬, 120:14)
- 12) (兄)\せいじん(成人)仕て候へ共名をかへ(替)ずかなぼうし(法師)と申て、おきな(幼)名を申せは、某がきも(肝)をい(煎)つて、名をかへてとらせぬと、人ことに仰らるゝ程に (びくさだ, 268:3)
- 13) (博勞)\かう申せは物にに(似)たれども、もと(求)めさせられたたれはこそ、われらにみてもらはふとおほしめ(思召)して、ひいて出させられた (よこ座, 136:11)

마지막으로,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항상 조건표현을 살펴보면, 그 발달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례수를 살펴보면 총 709용례로 전체 순접 조건표현의 4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접속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동사의 경우가 524용례로 73.9%로 나타나 그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ナレバ」의 경우가 24용례로 3.4%를, 「タレバ」의 경우가 118용례로 1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수이지만 조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33용례와 10용례가 있

었다. 이와 같은 비율로 나타나 있는 항상 조건표현의 각각의 용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4) (教え手)\そのやうにさへすれは、むこ殿はしつけ人じやといふてほ(賞)めうほ
 ども、そのやうにあそばせ (音曲聲, 338:1)
- 15) (太郎冠者)\殊に人大勢なれは、みてもようござるが、某一人にては、けつく
 (結句)みぐるしうござらふ (くらままいり, 64:15)
- 16) (妻)\くわほう(果報)がなければならぬ (今じんめい, 285:4)

항상 조건의 경우 후건이 대부분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용례문 16)와 같이 추량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다. 이것은 항상 조건표현이 가정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아마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에 나타난 순접조건표현의 양상

『아마쿠사반 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이하 天草版平家物語라 약칭한다)는 1593년 당시 크리스티교 포교를 위해 일본에 온 예수회 외국인선교사들의 일본어 습득을 목적으로 아마쿠사카쿠린(天草學林)에서 출판된 구두어 자료이다. 특히 구두어 자료가 부족했던 당시의 음운 자료로서의 가치는 말 할 것도 없으며, 어휘나 어법의 유용한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天草版平家物語』에 나타난 가정조건의 경우, 접속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未然形+バ」와 「ナラバ」, 「タラバ」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未然形+バ」의 경우 총 78용례가 있었다. 접속된 동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四段動詞가 21용례로 총 26.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조동사로 총 18용례, 23.1%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동사의 경우 총 용례가 모두 「レバ」 「ラレバ」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존경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ゴザラバ」가 총 17용례로 21.8%를 나타냈다. 소수의 용례로 下二段과 나 변접속이 각각 6용례로 7.7%, 5용례로 6.4%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앞서 검토한 『大藏虎明本狂言集』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未然形+바」형식이 쇠퇴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ナラバ」와 「タラバ」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ナラバ」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사에 접속된 형식으로, 총 31용례로 39.2%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동사와 접속된 표현은 총 27용례로 34.3%로, 「ルルナラバ」「マラスルナラバ」외에 부정추량의 조동사 「マイ」와 추량의 조동사 「ウ」에 접속된 형태가 소수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조사와 접속된 경우도 나타났는데, 특히 문상당어구(文相當語句)에 해당하는 「ゾナ라바」가 3용례 나타나 있었다.

다음으로 「タ라바」경우, 총 20용례가 나타나 있을 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의 주요한 용례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イヅクへ行カバ、ノガレウカト思ウタレバ、ヒカエテ敵ヲ待ツトコロニ、猪俣ヨイ敵ト目ヲカケテ、鞭ヲアケ馳セ寄セ、押シ並ベテ組ンテ落チタ。

(天草版平家物語卷四, 8:273)

- 18) ソレニモ御心ノユカザ라우時コソ、御様ヲモ変エサセラレテ、ノチノ世ヲモトムライ參ラセラルルナ라바、ヨウゴザ라우。(上同 卷四, 十:282)

- 19) コレヲ召シ具シテ院ノ御所ヲ守護シ參ラスルゾ나라바、サ스가モッテノホカノ御大事テゴザ라우。(上同 卷一, 六:47)

- 20) 忠盛ソノ様態ヲ知ラセタウ思ワレタレドモ、ユ우나라바、殿上マデモ切りノボサウナ者ノ面魂デアッタニヨッテ、別ノコトモナイゾト答エラ레テゴザッタ。

(上同 卷一, 一:6)

- 21) 今ヤ下ル、今ヤ下ルト、待チマラスルトコロエ、切ラレタト聞コエ타라바、イカホドカ嘆キマラショウズ라우。(上同 卷三, 八:189)

다음으로, 『天草版平家物語』에서 항상 조건의 용례문은 36용례가 나타났다. 이는 항상 조건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추출된 용례들도 대부분 확정 조건표현과의 경계 상에 있는 것들이어서

항상 조건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났다. 항상 조건표현의 해당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 思ワシイモノヲ見ウトスレバ、父ノ命ヲソムクニ似、父ノ命ヲソムクマジイト
 スレバ、深ウ契ツタ女ノ心ヲ破ラウズ。 (上同 卷四, 13:307)
- 23) モシ頼政チャフ、光基ナドト申ス源氏ドモニアザムカレタレバコソマコトニー
 門ノ羞恥デモゴザラウズレ。(上同 卷一, 2:16)

4. 『아마쿠사반헤이케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와 『오쿠라도리아키라본 교겐슈(大藏虎明本狂言集)』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 본 『天草版平家物語』와 『大藏虎明本狂言集』의 순접 조건표현의 분석결과 중, 우선 가정 조건표현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면 이하와 같다.

<표2> 『天草版平家物語』와 『大藏虎明本狂言集』의 가정 조건표현의 양상

어례 \ 자료	『天草版平家物語』	『大藏虎明本狂言集』
「未然形+バ」	78 (44.1)	227 (35.8)
「ナラバ」	79 (44.6)	190 (30.0)
「タラバ」	20 (11.3)	217 (34.2)
합계	177 (100.0)	634 (100.0)

위의 <표2>를 근거로 하여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인 『天草版平家物語』와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가정 조건표현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두 자료 모두 가정 조건표현의 형식인 「未然形+バ」, 「ナラバ」, 「タラバ」에서 과도기적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未然形+バ」로 대부분의 가정조건이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가정조건인 형식이 점차 세분화 되어 「ナラバ」, 「タラバ」의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용례 수 또한 「未然形+バ」와 「ナラバ」, 「タラバ」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점점 「未然形+バ」의 용례가 줄어들게 되고 「ナラバ」, 「タラバ」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天草版平家物語』의 경우 「タラバ」의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본어 조건표현사와는 상반되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이하 『平家物語』로 약칭한다)의 제저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大藏虎明本狂言集』과 『天草版平家物語』에 나타나는 항상 조건표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大藏虎明本狂言集』의 경우 항상 조건표현은 총 709용례로, 항상 조건표현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天草版平家物語』에 나타난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문은 36용례만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항상 조건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추출된 용례문들도 확정 조건표현과의 경계 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항상 조건표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났다.

『大藏虎明本狂言集』와 『天草版平家物語』의 서사 시기와 일본어 접속표현사의 사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天草版平家物語』에도 항상 조건표현이 두드러지는 등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비해 『天草版平家物語』에서는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가 극히 소수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직까지 그 표현형식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다.

5. 맺는말

지금까지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서 얻은 분석결과를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와의 공시적 비교를 통해 순접 조건표현에 관한 경향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알게 된 것을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분석결과와, 『大藏虎明本狂言集』와 『天草版平家物語』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결과인 두 가지 사항으로 세부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 조건표현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조건의 경우 크게 완료와 비완료로 구분되는데, 『大藏虎明本狂言集』에는 특히 비완료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 비완료의 경우 「동사의 未然形+バ」와 「ナラバ」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았으며, 완료는 「タラバ」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완료 용법이 많은 것은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 가능하게 하는 단정의 조동사 「ナリ」에 조사 「バ」가 접속된 표현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大藏虎明本狂言集』의 조건표현의 경우, 다른 조건표현보다 항상 조건표현의 용례가 특히 두드러진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추출된 예문들은 대부분 후건이 단정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추량표현을 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항상 조건표현이 추량의 표현을 동반하면서 가정조건표현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大藏虎明本狂言集』와 『天草版平家物語』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藏虎明本狂言集』와 『天草版平家物語』의 가정조건의 경우, 두 자료 모두 동시대의 구두어 자료라는 특성상, 공통적으로 가정 조건표현의 형식인 「未然形+バ」, 「ナラバ」, 「タラバ」에서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났다.

과도기적 양상이란, 이전 「未然形+バ」로 대부분의 가정조건이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가정조건의 형식이 점차 세분화 되어 「ナラバ」, 「タラ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빈도수가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ナラバ」, 「タラバ」의 형식이 세분화 되어 정착된 것이 아니라 점차 분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天草版平家物語』의 경우 「タラバ」의 용례가 다른 용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있었다.

둘째, 『大藏虎明本狂言集』와 『天草版平家物語』의 항상 조건표현의 경우 『大藏虎明本狂言集』에서는 항상 조건표현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天草版平家物語』에서는 항상 조건표현과 확정 조건표현과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동일한 구두어 자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

이상의 두 가지 결과는 일본어 조건표현사와는 상반되는 사항으로, 우선 「タラバ」의 경우 「タラバ」이외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등 제 요소들의 영향에 따른 결

과로 추측되며, 또한 항상 조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어자료인 『平家物語』를 구두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되는 바, 그 구체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平家物語』의 제 저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大藏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난 순접조건표현의 양상을 고찰한 후 『天草版平家物語』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동일한 구두어 자료임에도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범위를 순접 조건표현으로 한정된 결과, 조건표현과 접속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건표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조건표현 전체에 관한 연구를 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 문제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平家物語』의 제 저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바, 금후의 연구로 삼기로 한다.

참고문헌

- 油谷責編(1995), 『狂言』, 三省堂.
- 池田廣司·北原保雄(1972-1983), 『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 上·中·下』, 表現社.
- 江口正弘(1986), 『天草版平家物語對照本文及び索引 本文編』, 明治書院.
- _____ (1994), 『天草版平家物語の語彙と語法』, 笠間書院.
- 國語學會編(1982), 『國語學大辭典』, 東京堂出版.
- 小林賢次(1985), 「中世語資料としての狂言台本」, 『日本語學』31號, 明治書院.
- _____ (1996), 『日本語條件表現史の研究』, ひつじ書房.
- _____ 外編(1997), 『日本語學キーワード事典』, 朝倉書店.
- 阪倉篤義(1958), 「條件表現の変遷」, 『國語學』33輯, 國語學會.
- 佐藤喜代治編(1983), 『國語學研究事典』, 明治書院.
- 日本古典文學大辭典編集委員會編(1986), 『日本古典文學大辭典』, 岩波書店.
- 蜂谷清人(1977), 『狂言台本の國語學的研究』, 笠間書院.
- _____ (1991), 「狂言の日本語」, 『日本語學』110號, 明治書院.
- 眞下三朗外(1999), 『新編日本文學史』, 第一學習社.
- 益岡隆志(1995), 『日本語の條件表現』, くろしお出版.
- 柳田征司(1991), 『室町時代語資料による基本語詞の研究』, 武藏野書院.